

조선시대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복식명칭의 동의 관계 분석

김 은 정*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교수⁺

A Study on the Synonyms of Clothing terms in the Vocabulary Books of the Joseon Period

Eun-Jung Kim* · Soon-Che Ka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7. 3. 8 투고)

ABSTRACT

The study aimed to classify the synonyms of clothing terms, such as equal relationship, connoting relationship and partial relationship.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eleven Chinese character study books such as 《石峰千字文 Seokbongcheonjamun》, 《丙子本千字文 Byeongjacheonjamun》, 《註解千字文 Juhaecheonjamun》, 《訓蒙字會 Hungmongjahoi》, 《新增類合 Sinjeungyuhap》, 《兒學編 Aahakpyeon(1816)·(1908)》, 《蒙諭編 Mongyupyeon》, 《字類註釋 Jalyujuseok》, 《正蒙類語 Joengmongyueo》and 《通學徑編 Tonghakgyeongpyeon》, seven foreign language study books such as 《譯語類解 Yeokeoyuhae》, 《譯語類解補編 Yeokeoyuhae - supplementary book》, 《同文類解 Dongmunyuhae》, 《蒙語類解 Mongeoyuhae》, 《蒙語類解補編 Mongeoyuhae - supplementary book》, 《倭語類解 Oaeoyuhae》 and 《方言類釋 Bangeonyuseok》, and some vocabulary books 《才物譜 Jaemulbo》, 《廣才物譜 Kwangjaemulbo》, 《物譜 Mulbo》, 《物名攷 Mulmyeongko》, and 《事類博解 Salyupakhae》.

There are two kinds of synonyms with equal relationship that are spelled as more than two names for the same clothing. The first group was names that have different vocabularies for the same Chinese character headword, for example, Gyeokji and Namosin, Jeoguriot and Dongdolssi, Deungjige and Got dongot, Daloi and Nangja, Jitbidan and Oaedan, Jusa and Jeusya, Jusa and Murui, Muja and Heoja, and so on. The second group was names that are spelled with sound an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for example, Nuyeok and Sau, Binhyeo and Jam, Mosi and Jyeopo, and so on. Also synonyms of Chinese names were found in equal relationship.

Synonyms with connoting relationship in which one name perfectly connotes meaning of another name are Gotgal and Susik, Danryeong and Gwandae, Bosyeon and Chyeong, etc. In these cases, the range of the meaning of clothing terms can be confirmed since names with broad meaning connote names with narrow meaning.

There are differences in use and form. In partial relationship synonym with the same name, some synonyms like Baji and Goui, and Jeoksam and Hansam have difference in use, while Gamto, Got and Samo, Neolku and Satgat, and Nangja and Cheopji have difference in form. These presented differences among similar names.

Key words: synonym(동의어), clothing term(복식 명칭)

I. 서론

조선시대는 한자를 우리말로 언해한 여러 종류의 어휘집이 발간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제어로 기록된 한자 복식 명칭에 대응한 우리말 복식명칭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복식의 종류나 용도 등도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어휘집에 기록된 언해의 내용들을 주목해 보면, 복식을 지칭하는 하나의 한자 표제어가 모든 어휘집에서 동일한 한글 명칭으로 언해된 경우와 두개 이상의 다른 명칭으로 언해된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실제 같은 복식을 두고 두개 이상의 명칭으로 표기된 것인지, 하나의 명칭이 표기가 다른 명칭의 의미를 완전히 포괄하는 것인지, 혹은 용도, 형태 등 일부분은 동일하나 명칭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¹⁾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나의 한자 명칭에 대응하여 두개 이상의 한글 명칭이 있는 경우, 국어학에서는 이들 두 개 이상의 낱말의 관계를 ‘동의 관계’라고 하고, 자연 언어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²⁾, 이러한 동의 관계의 어휘들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이 지니는 ‘의미’의 복합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동의 관계에 있는 명칭들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각 명칭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조선시대 어휘집 중에서 11종의 아동용 한자학습서³⁾인 《石峰千字文(1583)》⁴⁾, 《丙子本千字文(1696)》⁵⁾, 《註解千字文(1804년)》⁶⁾, 《訓蒙字會》⁷⁾, 《新增類合》⁸⁾, 《兒學編(1816)》⁹⁾, 《兒學編(1908)》¹⁰⁾, 《蒙諭編》¹¹⁾, 《字類註釋》¹²⁾, 《正蒙類語》¹³⁾, 《通學徑編》¹⁴⁾과 7종의 類解類譯學書¹⁵⁾인 《譯語類解》, 《譯語類解補編》¹⁶⁾, 《蒙語類解》, 《蒙語類解補編》¹⁷⁾, 《倭語類解》¹⁸⁾, 《同文類解》¹⁹⁾, 《方言類釋》²⁰⁾에 기록된 복식관련 표제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우리말 명칭을 가진 한자명칭을 중심으로 하되 어휘분류사전인 《才物譜》²¹⁾,

《廣才物譜》²²⁾, 《物譜》²³⁾, 《物名攷》²⁴⁾, 《事類博解》²⁵⁾ 등도 참고 자료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상에서 발췌된 동의 관계에 있는 한글명칭 간의 분석은 국어학 분야에서 상정하는 동의 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통시적 관점에서 본 동의 관계 복식명칭의 의미

〈표 1〉은 하나의 한자명칭에 대응하여 두 가지 이상으로 언해된 쓰개, 족의, 의복, 수식, 직물에 관한 동의관계의 한글 복식명칭들을 어휘집의 발간연도를 기준으로 발췌·정리한 것이다. 발췌된 명칭 중 한자학습서의 표제어에 명사를 표현하는 중국식 표기법인 ‘子’가 붙은 명칭 즉 ‘帽·帽子, 襪·襪子, 靴·靴子, 袍·袍子, 襖·襖子, 簪·簪子, 釵·釵子’ 등은 같은 단어로 분류하였고, 한자학습서에 기록된 한자 표기가 외국어학습서에 기록된 한자어 안에 포함되는 경우인 履과 木履도 같은 단어로 분류하였다.

〈표 1〉을 보면 한자표제어에 대한 우리말 명칭이 시대²⁶⁾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와 유사한 시기에도 몇 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언해된 예를 볼 수 있다.

1. 시대에 따라 몇 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언해된 복식명칭

시대에 따라 한글명칭이 변화한 명칭들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풀이되다가 점차 구체적인 의복명칭으로 풀이되는 명칭인데 ‘冠, 冕, 巾, 靴·靴子, 襦, 襖·襖子, 綃’가 이에 해당되며 〈표 2〉와 같다. 이러한 명칭들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되는데, 명칭이 분화된 경우이거나 포괄하고 있던 명칭 중에서 그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풀이된 경우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冠, 冕, 巾으로 이들은 ‘갓갈’로 풀이되면서 점차 각각을 지칭하는 갓, 면류관, 수건으로 풀이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조선전기에는 ‘갓갈’이 이들 한자

<표 1> 동의관계의 복식 명칭

표제어	언해	출처 ²⁷⁾					
		16C	17C	18C	19C	20C	
쓰개	冠	갓갈	<<신>> <<석봉천>>				
		관			<<동>> <<몽>>	<<아(1813)>> <<주해천>>	
	冕	갓갈	<<훈>> <<신>>				
		면류관				<<자>>	
		면류				<<정>>	
	幘	갓갈	<<훈>>				
		적	<<신>>				
		머리사건				<<자>>	
	巾	갓갈	<<훈>>				
		수건	<<훈>> <<신>> <<석봉천>>	<<병자천>>			<<주해천>>
	頭面	갓갈		<<역>>			
		슈식			<<방>>		
	斗蓬	삿갓		<<역>>			
		널쿠			<<동>> <<몽>> <<방>>		
	帽·帽子	갓(갓)	<<훈>>		<<몽>> <<방>>		
		감토	<<훈>> <<신>>		<<동>> <<재>>	<<사>>	
		사모	<<훈>> <<신>>			<<아(1813)>>	<<아(1908)>>
		모자			<<왜>>		
	涼帽·涼帽子	너름사깃			<<역보>>		
		갓			<<동>>		
너름모자				<<방>>			
笠	갓[갓]	<<신>>		<<왜>>	<<자>> <<정>> <<통>>	<<아(1908)>>	
	삿갓				<<아(1813)>>		
족의	襪·襪子	청		<<역>>			
		보선	<<신>>		<<동>> <<몽>> <<방>> <<왜>>	<<아(1813)>> <<자>> <<정>>	<<통>>
	暖襪子	가족청			<<역보>>		
		너닐			<<동>>		
	靴·靴子	휏, 휏(즈)	<<훈>> <<신>>		<<동>> <<몽>> <<왜>> <<방>>		
		목화				<<아(1813)>> <<광재>>	
	屐·木屐	격지	<<훈>> <<신>>	<<역>>	<<몽보>> <<방>>		
		나모신			<<동>>	<<아(1813)>> <<자>> <<정>>	<<통>>
	의복	袍·袍子	관대옷	<<훈>> <<신>>			
			도포				<<아(1813)>>
주의						<<정>>	
운옷[웃웃]				<<역보>> <<동>> <<몽>> <<방>>	<<자>>		
團領	단령		<<역>>	<<왜>>			

조선시대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복식명칭의 동의 관계 분석

		관디			《동》 《몽》 《방》		
衫	적삼	《훈》				《아(1813)》 《자》	《통》
	홀옷	《신》					
衫兒	섬빚기적삼		《역》				
	적삼			《동》 《몽》			
襦	다른할옷	《신》					
	저고리					《아(1813)》 《자》 《광재》	《통》
襖· 襖子	옷	《훈》					
	할옷	《신》		《왜》			
	두루마기					《아(1813)》 《자》	
	들씨			《동》 《몽》			
小襖子	동옷			《몽보》			
	동들지			《방》			
	저구리옷		《역》				
	동들씨			《동》			
掛子	긴져구리				《역보》		
	쿠리매			《동》 《몽》			
	자근옷			《방》			
齊肩掛	등지게		《역》	《동》			
	갓동옷			《몽보》			
裳	朝服엿치마	《역》					
	치마	《훈》 《신》		《왜》		《아(1813)》 《자》 《정》	《통》
袴	고의	《훈》					
	바디	《신》				《자》	
	바지					《아(1813)》 《정》	《통》
褌	둥의	《신》					
	속건					《자》	
蓑	늪역						《아(1908)》
	되롱이					《아(1813)》 《자》	
蓑衣	늪역		《역》	《동》 《몽》			
	사의			《왜》			
襪	달외	《훈》					
	낭즈					《아(1813)》	
	철지						《아(1908)》
鞞·鞞子	빈혀	《훈》 《신》		《동》 《몽》	《자》		
	좁			《왜》 《방》			
釵·釵子	동곳	《훈》					
	빈혀		《역》	《방》	《자》 《아(1813)》		《통》
	가랑빈혀						《아(1908)》
釵	동곳	《훈》					
	빈혀				《자》		

수식	珥	귀엣골	《훈》		《왜》			
		귀마개	《신》					
		귀고리				《아(1813)》		
		귀구슬				《자》		
	紳	씩	《훈》					
		딤딤				《자》		
		큰씩	《신》			《아(1813)》		
	鞞	바탕	《훈》					
가족씩					《자》			
직물	帛	비단	《훈》			《아(1813)》 《사》		
		김	《신》					
		면जू				《자》		
		명जू				《정》	《통》	
	紬	명디	《훈》					
		면뉘	《신》					
		굵은면जू				《자》		
	花紬	화방जू			《몽보》			
		화जू		《역》				
	縞紬	주사			《몽보》			
		즈우사		《역》				
	繪	그늘김	《훈》					
		김				《자》		
	絹子	김			《역보》 《몽》 《방》			
		견			《동》			
	직물	錦	금	《훈》 《신》				
			비단				《아(1813)》 《자》 《정》	
		氎	무즈	《훈》				
			모포				《자》	
		氎子	무즈		《역》			
허자					《동》			
氎		시옥	《훈》 《신》					
		담요					《통》	
縞		그늘뵈	《훈》					
		갈포				《자》		
紵		굴근뵈	《훈》					
		갈포				《자》		
苧布		모시			《동》 《몽》 《방》			
		저포			《왜》			
縞		무뤄	《훈》					
		세갈				《자》		
穀	무뤄	《훈》						
	저스				《아(1813)》 《정》			
		츄라			《자》			

<표 2> 우리말 풀이가 구체화되는 복식명칭

명칭	16C	17C	18C	19C	현재 사전 정의 ²⁸⁾
冠	갓갈	관다	관	관	갓
冕	갓갈	-----	-----	면류 면류관	면류관
巾	갓갈	수건	수건	수건	수건
靴·靴子	뿔[휘]	-----	뿔(뿔즈)	목화	신
襦	다룬할옷	-----	-----	저고리	저고리
襖·襖子	옷, 핫옷	핫옷	들찌·동옷·동돌지	두루마기	윗옷
綃	깃	-----	-----	싱초	생초

들을 포괄하는 쓰개의 대표적인 우리말 명칭이었으나 점차 각각을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는 綃가 '깃→싱초'로 변화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靴, 襦, 襖인데 이들 각각을 보면 조선전기에 靴는 목이 긴 신을 지칭하는 '뿔'로, 襦는 길이가 짧은 상의를 지칭하는 '다룬할옷'으로, 襖는 상의 중에서도 솜을 든 옷을 지칭하는 '핫옷'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1800년대에는 '靴→목화', '襦→저고리', '襖→두루마기'로 당시 사용되던 구체적인 한글 복식명칭으로 언해되고 있으며, 다시 이들 중 靴, 襖는 오늘날의 자전에 靴는 '신', 襖는 '윗옷'으로 조선전기와 같이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한자 명칭의 사용례가 줄어들면서 생긴 시대적인 변화로 이해된다. 단 1800년대에 두루마기를 지칭하던 襖는, 이후 '周衣'라는 한자 명칭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오늘날의 자전에서는 '周衣'가 '두루마기'로 언해되고 대신에 襖는 포괄적인 의미인 '윗옷'

으로 풀이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유형은 구체적인 명칭으로 풀이되다가 점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풀이되는 예인데, '袍, 釵·釵子, 絹子, 紗, 羅, 綾·綾子, 氈, 錦, 縐, 縠'가 이에 해당되며, <표 3>과 같다. 먼저 袍는 가장 겉에 입는 외의 중에서도 의례적인 용도의 옷을 지칭하는 '관대옷'에서 1800년대 이후에는 '도포·운옷·주의'로 풀이되면서 외의류의 명칭들을 포괄하는 한자명칭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신구에서는 釵·釵子가 '동곳'에서 '비녀'로 언해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빈혀라는 명칭이 동곳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명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釵·釵子'는 《訓蒙字會》²⁹⁾에는 '동곳'이라 하여 끝이 두 가닥인 형태의 것을 지칭하였고 이후에 제작된 어휘집에는 '簪'과 '釵·釵子'의 언해인 '빈혀'로만 기록되어 있어, 빈혀가 동곳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물류에서는 '絹子, 紗, 羅, 綾·綾子, 氈, 錦, 縐, 縠'이 각각 '깃, 사, 노, 고로, 금, 무뿔, 무뿔'의 특정한 직물명

<표 3> 우리말 풀이가 일반화되는 복식명칭

명칭	16C	17C	18C	19C	현재 사전 정의
帽子	간·감토·사모	-----	갓·감토·모자	사모·모자	모자
袍	관대옷	옷옷	옷옷·도포	도포·운옷·주의	핫옷·군복·내의·두루마기
釵(子)	동곳	빈혀	빈혀	빈혀	비녀
絹子	깃	깃	깃·견	깃	견
紗	사	-----	사·깃	사	깃·비단
羅	노	-----	라·깃	깃	비단
綾(子)	고로	릉	능·깃	릉·유문깃	비단
錦	금	-----	비단	비단	비단
縐	무뿔	-----	-----	세갈	-----
縠	무뿔	-----	-----	저스·츄라	비단

<표 4> 우리말 표기의 변화

명칭	16C	17C	18C	19C	현재 사전 정의
木屐	격지	격지	격지, 나모신	나무신	나무신
珥	귀엣골, 귀마개		귀엣골	귀구슬	귀고리
袴	고의, 바디	고의, 바디	바지	바지	바지
羅	노	-----	라, 깃	깃	비단
綾·綾子	고로	릉	능, 깃	릉, 유문깃	비단
紬	명디, 면듀	-----	-----	굵은면जू	명जू
氈	시옥	-----	-----		담요
縐	무뤼	-----	-----	세갈	
穀	무뤼	-----	-----	저스, 쥬라	비단

칭들로 인해되다가 1800년대 이후에 일반적으로 견직물을 통칭하는 명칭인 ‘깃 또는 비단’으로 인해되었다. 이상의 명칭들 중에서 ‘비녀, 깃·비단’은 후대로 가면서 점차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앞선 시기에 인해된 명칭들의 의미를 포괄하였고, 또한 각각의 부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명칭이었기 때문에 다른 명칭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변화된 것으로도 이해된다.

세 번째 유형은 의미에는 변화가 없으나 표기만 변화되는 것으로, 古語에서 현대어로 바뀌는 것이다. ‘木屐, 袴, 珥, 羅, 綾(子), 紬, 氈, 縐, 穀’이 이에 해당되며 <표 4>와 같다. 木屐은 ‘격지→나무신’으로, 袴는 ‘고의→바디→바지’로, 珥는 ‘귀엣골→귀여골→귀고리’로, 紬는 ‘명디→면듀→명जू’로, 綾은 ‘고로→능’, 羅는 ‘노→라’, 縐는 ‘무뤼→세갈’, ‘穀’은 ‘무뤼→저스’, 氈은 ‘시옥→담요’로 변화되었다. 이중 ‘바디→바지’, ‘귀엣골→귀여골’, ‘명디→면듀→명जू’의 변화는 중세국어의 음운체계의 변화³⁰⁾에 의한 것이고, 綾과 羅는 한자의 음을 寫音한 표기로 변화

된 것이다. 이러한 어휘 형태의 변화는 보다 발음이 편하고 쉬운 단어를 채택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유사시기에 몇 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인해된 복식명칭

유사한 시기 즉 제작연대가 유사한 어휘집을 중심으로 보면, <표 5>와 같이 ‘帽·帽子(갓, 감토, 사모, 모자), 襖·襖子(옷, 핫옷/ 들씨, 동옷, 동돌지), 蓑衣(누역, 사의), 簪·簪子(빈혀, 잠), 帛(비단·깃/비단·면जू·명जू), 紬(명디·면듀), 絹子(깃·견), 苧布(모시, 저포)’ 등이 같은 시기에 두 개 이상으로 인해된 명칭이다. 이중 帽(子)는 인해를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형태, 용도가 다른 쓰개의 우리말 명칭인 ‘갓, 감토, 사모, 모자’를 대표하는 한자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襖·襖子, 蓑衣, 帛, 簪·簪子, 苧布에서는 이들을 인해하는 동일한 의미의 우리말 명칭이 같은 시기에 적어도 두 개 이상

<표 5> 우리말 표기의 변화

명칭	16C	17C	18C	19C	현재 사전 정의
帽·帽子	간·감토·사모		갓·감토·모자	사모·모자	모자
襖·襖子	옷, 핫옷		들씨·동옷·동돌지		윗옷
蓑衣			누역·사의		사의
簪·簪子			빈혀·잠		잠
帛	비단·깃			비단·면जू·명जू	비단
紬	명디·면듀				명जू
絹子			깃·견		견
苧布			모시·저포		苧:모시 저

있었음이 확인되고, 紉에서는 ‘명디→면듀→명주’로의 어휘 형태 변화과정이 확인된다.

Ⅲ. 동의 관계 유형의 분석과 의미

하나의 표제어에 대해 동시에 몇 가지의 다른 우리말 명칭이 존재할 경우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유형의 동의관계가 존재한다. 국어학에서는 동의어들의 관계를 <표 6>³¹⁾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두 낱말 A, B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서 이는 대등한 관계의 동의관계 유형이다. 복식에서는 동일한 것을 지칭하나 명칭만 다른 경우이다. 둘째는 두 낱말 사이에서 A는 상위어, B는 하위어가 되는 경우로서 이는 포섭관계의 동의관계 유형이다. 이러한 포섭관계에서는 하나의 상위어 속에 여러 개의 하위어가 존재하는데, 복식에서는 하나의 명칭 A가 명칭이 다른 B를 포괄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셋째는 두 낱말 A와 B는 서로 간에 부분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갖는 경우로서 부분적인 동의관계 유형이다. 복식에서는 용도,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명칭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본 장에서는 복식관련 명칭들을 전술한 세 가지의 동의관계 유형으로 분류하여 동의관계에 있는 한글명칭들 간의 복합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히하고자 한다.

1. 대등한 관계의 동의어

대등한 관계의 동의어에는 ‘격지와 나모신, 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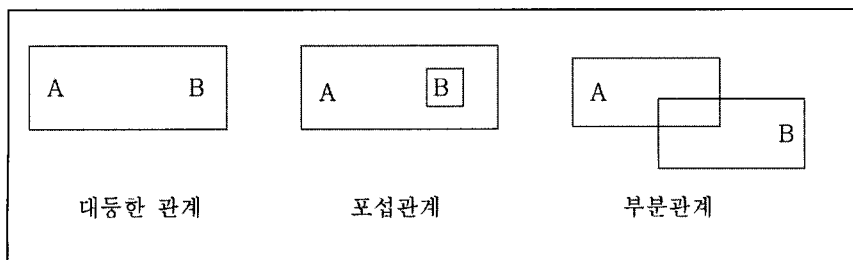
과 사의, 저구리옷과 동돌씨, 등지계와 갓동옷, 달외와 낭자, 짓비단과 왜단, 주사와 즈우샤, 주사와 무뤄, 무즈와 허즈, 고로와 능, 노와 라, 무뤄와 저사, 시육과 담요’가 있다.

격지와 나모신은 木屐을 언해한 것으로, 격지는 나모신의 고어로 어휘형태만 다른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어에서 현대어로 의미는 같되 어휘의 형태가 달라진 명칭에는 綾을 언해한 ‘고로와 능’, 羅를 언해한 ‘노와 라’, 穀을 언해한 ‘무뤄와 저사’, 氈을 언해한 ‘시육과 담요’가 있다.

저구리옷과 동돌씨는 小襖子를 언해한 명칭으로 짧은 상의³²⁾를 지칭하는 동의어이다. 등지계와 갓동옷은 齊肩褂를 언해한 것으로 소매가 없거나 짧은 형태의 의복으로 추측되는데³³⁾, 등지계는 소매가 없는 의복의 형태를, 갓동옷은 가죽으로 만든 상의로서 의복의 재료에 중점을 둔 명칭으로 같은 의복을 지칭하는 동의어이다.

달외와 낭자는 鬘의 언해로 표기되었는데, ‘머리에 없는 다른 머리’라는 의미로 표기만 다르다. 짓비단과 왜단은 ‘羽段’을 언해한 것으로, ‘짓³⁴⁾’은 ‘깃’을 의미하는 방언으로 ‘羽段’을 뜻으로 풀이한 명칭이다. 또 왜단은 ‘倭段’의 한글표기로 ‘倭’가 ‘순한 모양’을 의미하는 한자로 그 의미에 있어서 ‘羽段’과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짓비단과 왜단은 대등한 관계의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주사와 즈우샤는 縐紉를 언해한 것으로, 즈우샤는 <譯語類解>³⁵⁾에서 보면 한어 발음 ‘주사’를 우리글로 옮긴 것으로 결국 ‘주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뤄와 주사는 縐紗의 언해로 표기되고 있어 무뤄와 주사가 동의어임을 알 수 있으며, 주사·즈우샤·무뤄

<표 6> 동의 관계 유형



가 모두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무즈와 허즈는 髒子를 언해한 것으로, 무즈는 ‘襪子’의 한어 발음을 차용한 명칭³⁶⁾이고 허즈는 髒子の 한어 발음을 차용한 명칭으로 명칭만 다르다.

누역과 사의는 ‘蓑衣’, 빈허와 즘은 ‘簪’, 모시와 저포는 ‘苧布’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자의 음과 뜻으로 이루어진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대등한 관계의 동의어에서는 하나의 한자어 명칭에 대한 한글 동의어 명칭을 확인할 수 있고, 한글 복식명칭의 동의어들 중에는 한자의 음을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자의 뜻을 표기하여 대등한 동의 관계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포섭 관계의 동의어

포섭관계의 동의어에는 ‘수식과 곳갈, 관대와 단령, 보선[버선]과 청’이 있다.

곳갈과 수식은 頭面으로 표기되는데, 곳갈은 《譯語類解》³⁷⁾에 ‘首飾一件謂之--’으로 설명하고 있어 곳갈은 수식 안에 포함되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단령과 관대는 團領의 언해로 관복을 의미하는 관대가 특정의복을 지칭하는 단령을 포괄하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보선[버선]은 신 안에 신는 족의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靴’ 안에 신는 버선의 한 종류인 청³⁸⁾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이상 포섭관계 동의어에서는 의미가 큰 명칭이 작은 의미의 명칭들을 포섭하고 있어 하나의 복식 명칭이 지니는 의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3. 부분 관계의 동의어

부분 관계의 동의어에는 ‘고의와 바지, 적삼과 한삼, 감토·갓·사모, 널쿠와 샷갓, 낭자와 첩지’가 있다.

고의와 바지는 ‘袴’의 언해로 모두 두 다리를 꿰어 입는 하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바지는 ‘綿褲, 褲子’의 언해로, 고의는 ‘單褲, 褲’의 언해로 표기되어 있어 바지는 겉옷으로 고의는 속옷³⁹⁾으로서 용도에 차이가 있었다.

적삼과 한삼은 ‘衫’의 언해로 홑옷을 의미하지만 한삼은 홑옷 중 가장 안에 입는 옷⁴⁰⁾으로 적삼과 구분되며, 또한 한삼은 손에 다는 천⁴¹⁾을 의미하기도 하여 적삼과 한삼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있었다.

감토·갓·사모는 ‘帽子’의 언해이며, 쓰개라는 공통점으로 동의관계에 있지만 감토는 머리의 형상에 맞는 직물을 사용한 일반적인 쓰개인 반면 갓은 고정된 형태로 챙이 있고 대나무 등을 사용한 의례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 사모는 예복에 사용된 특정형태의 쓰개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널쿠와 샷갓은 ‘斗蓬’의 언해로 표기되었는데, 널쿠는 눈이나 비를 가리는 의복⁴²⁾이고, 샷갓은 눈이나 비를 가리는 쓰개로 형태는 다르지만 용도에서 있어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낭자와 첩지는 ‘髻’의 언해로 표기되었는데, 머리를 꾸미는 용도로 보면 같은 의미이지만 낭자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덧붙인 장식머리이고, 첩지는 은이나 구리로 만든 특정한 모양의 장신구로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부분관계 동의어에서는 형태는 같은데 용도가 다르거나 용도는 같은데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 등 유사한 명칭들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아동용 한자학습서, 유해류 역학서를 중심으로 하나의 한자표제어에 두 가지 이상의 한글 명칭으로 언해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언해된 한글명칭 사이의 동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동의관계 명칭들은 어휘집의 제작연대를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먼저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木屐(격지→나무신), 襪(청→버선), 綾(고로→능·깁·비단), 羅(노→라·깁)는 이를 언해한 격지, 청, 고로, 노의 명칭이 일정기간 이후에는 표기되지 않고 의미는 같되 표기가 다른 나무신, 버선, 능·깁·비단, 라·깁의 명칭으로 언해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 紬(명디→면뽕→굵은면쥬→명주)와 袴(고의→바디→바지)는 현재 사용되

는 어휘형태인 명주와 바지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靴(화→복화), 袍(관대옷→온옷→주의→도포), 襖(옷→하옷→두루마기), 襦(다른하옷→저고리) 등은 시대에 따라 연해가 달라지는 명칭들로 점차 구체화된 의복명칭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 시대에 따라 한자에 대한 연해 표기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시대 복식명칭의 어휘변화와 시대에 따른 복식명칭의 사용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작연대가 유사한 어휘집을 중심으로 복식명칭을 살펴보면, ‘帽·帽子(갓, 감투, 사모, 모자), 襖·襖子(옷, 하옷/ 들썬, 동옷, 동돌지), 蓑衣(누역, 사의), 簪·簪子(빈허, 즘), 帛(비단·김/비단·면주·명주), 紬(명디·면뎡), 絹子(김·견), 苧布(모시, 저포)’ 등은 연해된 명칭 모두가 같은 시기에 사용된 동의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휘집을 통해 본 복식명칭의 동의어들은 실제 같은 복식을 두고 두개 이상의 명칭으로 표기되거나 또는 하나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포괄하는 의미가 다르거나 그 자체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어학의 자료를 참고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동의어 관계를 해석해 보았다.

먼저 대등한 관계의 동의어는 동일한 것을 지칭하나 명칭만 다른 경우로 ‘겨지와 나모신, 고로와 능, 노와 라, 무뤄와 저사, 시옥과 담요’와 같이 고어에서 현대어로 바뀌는 경우, ‘저구리옷과 동돌썬, 등지개와 갓동옷, 달외와 낭자, 깃비단과 왜단, 주사와 즈우샤, 주사와 무뤄, 무즈와 허즈’ 등과 같이 하나의 한자 표제어에 대한 어휘형태가 다른 명칭들과 ‘누역과 사의, 빈허와 즘, 모시와 저포’와 같이 한자의 음과 뜻으로 표기되는 명칭들이 있었다. 이상을 통해 당시 한자어 명칭에 대한 한글 동의어 명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복식명칭에 한자어와 한글표기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포섭 관계의 동의어는 하나의 명칭이 표기가 다른 명칭의 의미를 완전히 포괄하는 경우이거나 복식형태가 다른 다수의 명칭들을 포괄하는 경우인데, ‘굿갈과 수식, 단령과 관대, 보선[버선]과 청’ 등의

미가 큰 명칭이 작은 의미의 명칭들을 포섭하고 있어 복식명칭의 의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분 관계의 동의어는 용도,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같지만 명칭이 다른 경우인데, 바지와 고의, 적삼과 한삼과 같이 용도의 차이로 부분 동의관계에 있거나 널쿠와 삿갓, 낭자와 첩지와 같이 형태의 차이로 부분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사한 명칭들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복식용어의 시대와 언어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표기법의 관한 자세한 고찰은 국어학 분야와의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박성실 (2005). 조선시대 몽두의에 관한 연구. 복식, 55(8).
- 박성실 (1996). 回裝赤古里와 肩刀只 再考. 菊堂 孫敬子 教授 퇴임기념논문집 별채본.
- 김진구 (1998). 보선과 청의 명칭 연구. 복식문화연구, 6(3).
- 김진구 (1999). 잇스매와 합스매의 명칭. 복식문화연구, 7(2).
- 2) 심재기 (2000). 國語 語彙論 新講. 태학사, p. 35.
- 3) 김은정, 강순제 (2004). 조선시대 아동용 한자학습서를 통해 본 복식명칭 연구. 복식, 54(4), pp. 98-100, 서지적 고찰 참조.
- 4) 石峰千字文.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5) 최세화 (1993). 漢字敎本三書研究. 태학사.
- 6) 홍성원 편찬. 註解千字文.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7) 영인본 訓蒙字會 (1973). 서울: 大提閣.
- 8)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第2卷 (1972). 영인본 新增類合. 檀國大出版部.
- 9) 정재영 (2002). 茶山 정약용의 『兒學編』, pp. 161~242. 강경훈본 영인본 참조.
- 10) 정약용 著, 池錫永 注釋 (1908). 兒學編. 廣學書鋪.
- 11) 蒙諭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12) 영인본 字類註釋 해제 (1974). 건국대학교출판부.
- 13) 正蒙類語.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4) 通學徑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5) 김은정, 강순제 (2006). 조선시대 외국어학습서를 중심으로 본 복식명칭 연구. 복식, 56(6), p. 73. 서지적 고찰 참조.
- 16) 영인본 譯語類解·譯語類解補編 (1974). 서울: 亞細亞文化社.
- 17) 영인본 蒙語類解·蒙語類解補編 (1971). 서울: 大學校出版部.

- 18) 鄭光 編著 (1988). 영인본 倭語類解. 太學社. p. 86.
- 19) 영인본 同文類解 (1995). 홍문각. 40) 김은정 (2006). 위의 글.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82.
- 20) 영인본 方言類釋 (1985). 홍문각. 41) 이기문 감수 (1990).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p. 2557.
- 21) 才物譜.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이성지가 1798년 8권4책 삼재와 만물의 옛 이름 및 별칭 등을 쓴 책으로, 경사자집을 근본으로 하고 일일이 주를 달았으며 간간이 한글풀이도 하였다. 42) 김은정 (2006). 앞의 글.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74.
- 22) 영인본 廣才物譜 (1998). 홍문각. 작자, 연도 미상의 책으로 4권 4책으로 구성되었는데, 《재물보》를 확대한 것으로 사물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한글과 한문으로 배열한 어휘집이다.
- 23) 物譜.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유희가 1820년에 간행한 5권1책으로, 여러 가지 물명을 모아 한글 또는 한문으로 풀이해 만든 일종의 어휘사전이다.
- 24) 학회자료 (1995). 物名攷. 고문연구 8. 한국고문연구회.
- 25) 영인본 事類博解 (1994). 민창문화사. 작자 미상으로 1855년 上,下 1책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류에 한자로 된 동의어(同義語)를 나열 해 놓고 그 한자 단어 밑에 그에 해당하는 국어 단어를 한글로 써놓았다.
- 26)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구분을 1세기(C)로 한다.
- 27) 출처의 약자는 《訓蒙字會》=《훈》, 《新增類合》=《신》, 《兒學編(1813)》=《아(1813)》, 《兒學編(1908)》=《아(1908)》, 《字類註釋》=《자》, 《正蒙類語》=《정》, 《通學徑編》=《통》, 《譯語類解》=《역》, 《譯語類解補編》=《역보》, 《同文類解》=《동》, 《蒙語類解》=《몽》, 《蒙語類解補編》=《몽어》, 《倭語類解》=《왜》, 《方言類釋》=《방》, 《石峰千字文(1583)》=《석봉천》, 《丙子本千字文(1696)》=《병자천》, 《註解千字文(1804년)》=《주해천》, 《才物譜(1798)》=《재》, 《才物譜(1798)》=《才》, 《廣才物譜》=《廣》, 《物譜》=《物譜》, 《物名攷》=《物》, 《事類博解》=《事》이다.
- 28) 이가원·안병주 감수 (2004). 大漢韓辭典. 교학사.
- 29) 영인본 訓蒙字會 (1973). 大提閣:서울, 中, 服飾 十二.
- 30) 김성규 (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연구 I. 국립국어연구원, pp. 32-52.
- 31) 심재기 (2000). 앞의 책. 태학사, p. 37.
- 32) 김은정 (2006). 어휘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83-84.
- 33) 김은정 (2006). 위의 글.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85.
- 34) 이희승편저 (200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 3663.
- 35) 영인본 譯語類解·譯語類解補編 (1974). 서울: 亞細亞文化社, p. 150.
- 36) 영인본 事類博解 (1994). 민창문화사, p. 119. '穆'는 중국어 발음으로 'mu'.
- 37) 영인본 譯語類解·譯語類解補編 (1974). 서울: 亞細亞文化社, p. 88.
- 38) 김은정 (2006). 앞의 글.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76-77.
- 39) 김은정 (2006). 위의 글.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